

2-6반 이름: 김찬민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바람이 불고 흐릿한 날

제목 : 키자니아

일요일 8시쯤 엄마, 누나랑 같이 키자니아
갔다. 키자니아 안으로 들어가 제일
먼저 CSI 과학수사대를 했다 거기에서
누가 범인인지,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컴퓨터로
찾는다. 범인의 이름을 찾으면 경찰한테 알려준다.
다 끝나고 햄버거 카페테리아에 가서
햄버거를 만들었다. 또 그 다음에
병원에서 내시경 수술을 하였다.
또 풍 키즈를 받았다. 키자니아 네이버
대학으로 가고 TV 스튜디오에 갔다.
그다음 리트 이이스터 공장에 갔다. 다 만들고
리트 스튜디오에서 리트를 했다. 정말
재미있었다. 그다음 휴대전화 디자인 연구소에
갔다. 컴퓨터로 디자인을 했다. 그다음
국세청으로 가 세금을 쳐주었다. 그부에서
특공대를 하였다. 또 현대항공을 하였고
비행기 조종사도 했다. 라면공장
(순천면역4팀장) 자동과 대리점 7곳이 만들어
가게 했다. 키자니아에서 재미있게 놀다
기별다.

2-6반 김찬민